

금호석유화학,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금호산업과 함께 양대 지주회사 체제 ... CJ그룹도 12사 지주회사로

재계 서열 9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19위의 CJ그룹이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

재계에서는 2개 그룹에 이어 서열 3위인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CJ그룹의 CJ홈쇼핑 등 3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해왔다고 발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양대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호산업은 자회사 13개, 손자회사 10개를, 금호석유화학은 10개 자회사와 16개 손자회사를 각각 거느리게 된다.

CJ그룹은 지주회사인 CJ홈쇼핑이 자회사로 CJ케이블넷과 엠플온라인, 드림씨티방송 등 5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CJ케이블넷영남방송, 드림네트웍스 등 7개가 손자회사로 소속된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는 2004년 22개에서 2005년 25개로 증가했고 2006년에는 31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8월말 이후에는 롯데산업과 롯데물산이 지주회사에서 제외됐고 태평양, KPC홀딩스가 추가됐으며 2007년 들어서는 KEC홀딩스, 바이더웨이CVS홀딩스, AON21유한회사, 넥슨홀딩스 등 4사가 지주회사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CJ홈쇼핑 등 3사의 지주회사 전환요건에 이상이 없으면 지주회사는 모두 38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SK그룹이 SK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5월29일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기로 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재벌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요건을 상장은 30%에서 20%로, 비상장은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보유중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2>